

작지만 역동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조치원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에서 승용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주거지의 적지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이 될 오송역(경부·호남선 분기역)은 차로 5분 거리다. 이러한 교통결절 기능과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여 대형 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조치원이다.

일반 주민에게 조치원에 대한 이미지를 묻게 되면, 아마 복숭아, 최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부선과 충북선이 분기하는 결절지 등을 응답하게 될 것이다. 과연 조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우선, 본 고에서는 조치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현재의 조치원의 상황을 살펴보며 조치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조치원의 역사

조치원은 조선시대에 청주목 서강의 일하면 조치원리였다가 1914년 연기현 북면 조치원리로 바뀌었다. 근대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들의 그러하듯이 조치원은 경부선의 개통(1905년)과 더불어 형성된 도시로 근대 교통중심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1년 조치원-청주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대전-청주를 잇는 물자집산의 요충지로 성장하기에 이르고, 1931년에는 조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조치원의 명칭은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崔致院)과 연관된다고 구전된다. 조치원의 명칭을 보고서 “조치원=최치원”이라고 연상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전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치원“이라는 이름은 신라 말기의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최고운 선생이 당나라에서 격문 한 장으로 황소의 난을 토벌하여 문명을 떨치자, 신라의 진성여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했으며, 그는 권유에 따라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용되지를 못하고 변방의 수리시설을

〈그림 1〉 조치원을 최치원으로 표기한 지도

조치원의 현황 및 여건

조치원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연기군의 군청소재지로 연기군 전체 인구 84,107명중 35,871명이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연기군의 동측으로는 청주와 오송시가, 서측으로는 공주시가, 남측으로는 대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북측으로는 천안시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의 중대도시들과의 도시세력 비교시 연기군 및 조치원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위에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국가간선망이 통과하는 교차지점으로 주변도시간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대전과는 약 37km, 청주 19km, 천안 28km, 공주 23km의 거리를 각각 두고 이들 도시에 둘러쌓인 곳으로 연기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환경면에서는 북서쪽으로는 작은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지형이며, 동쪽으로는 조천이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며 중심시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연기군은 충청남도내의 16개 시군중에서도 개발이 활발한 곳으로서 조치원의 경우도 연평균 1.4%대의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침산리의 육일2차 아파트 입주를 시점으로 하여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서의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세대수는 12,866명이고,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학령인구(15-19세)는 연평균 -4.43%씩 감소하고 있어 중·고등 교육환경이 낙후되고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조치원의 산업분포는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58.94%, 종사자는 60.44%로 1·2차 산업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며, 도시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대비 종사자 기준의 조치원읍의 특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인근 광역도시권인 청주시 1.25, 대전시 1.24, 천안시 1.12보다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서비스업이 특화되어서 나타나는 이유는 조치원에는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치원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조치원 우리시장이다. 조치원 우리시장은 대전 유성시장, 공주시장과 함께 충청지역 5대시장으로 꼽히는 시장으로 전국의 각종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대전-논산간 고속도로, 경부선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다보니 적은 운송비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와 팔수 있기 때문인데, 조치원 역에서 동측 청주방향에 위치한 우리시장(6,600㎡)은 경부선 개통으로 조치원이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1931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충청지역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곳에는 180여개의 점포에 100여명의 노점상을 포함 모두 30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시장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5일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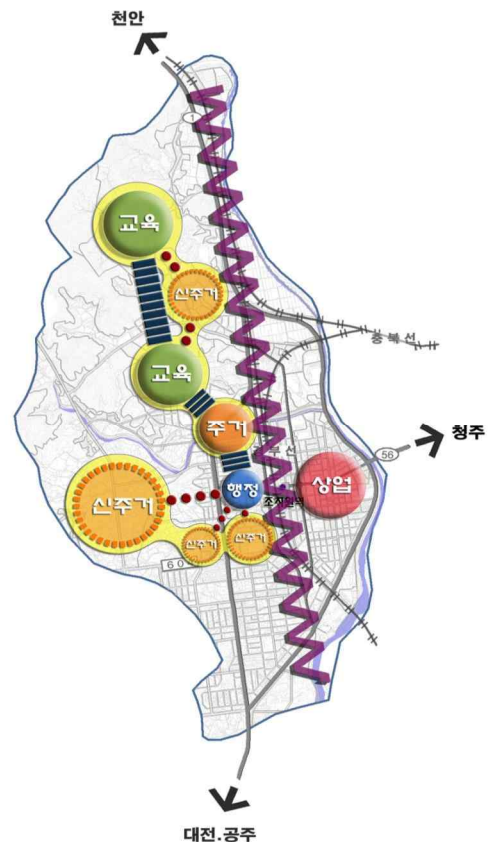
을 간직하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농산물과 식료품, 수산물, 잡화 등 100여가지 품목이 선보이며 우리시장의 대표적인 품목은 마늘과 고추다. 가을에는 충북 음성, 제천 등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수확철이나 김장철이면 대전과 청주, 천안 등에서 주부 여러명이 함께 몰려올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복숭아와 배, 사과, 딸기 등 과일도 복숭아가 출하되는 6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복숭아가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및 구도심의 쇠퇴 예상

조치원은 현재 동측으로는 구도심의 상권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측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주거 공간이 조성되면서 2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한 교육중심의 생활정주공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동측의 구도심 기능은 점차 쇠퇴하여 그 기능은 서측의 생활정주공간으로 이동하여 조치원읍의 정주체계는 점차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경부선 철도와 충북선 철도의 교차점으로서 조치원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철도는 주변 중·대도시권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철도역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해 철도 교차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간 광역 연결망은 남북으로 국도 1호선과 서쪽으로 지방도 36호선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부선·충북선 철도로 인해 도로의 동서간 연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도로, 철도 등의 결절점에 자연발생적으로 비정형적 도시형태로 발달하여 현재와 같은 도심지로 기능하게 되었으나, 지역간선교통망에 의해 시가지가 인위적으로 단절되어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진행됨으로써 도심지역의 형태가 간선교통망을 따라 띠형태로 발전하고 그 뒤로 배후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이고



〈그림 2〉 조치원읍의 공간구조

있다.

이렇게 성장하던 지방중소도시의 도심지역은 유입되는 인구를 외곽지역에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교통량이 간선교통망에 집중되다 보니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통과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회도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하고 있다.

조치원 역시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위치한 서측과 구도심이 동서로 중심역할을 수행중이지만, 서측의 택지개발 사업의 확대에 인하여 서측에는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학교와 신거주공간은 그 세력권을 확대하여 새로운 공간구조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치원역이 위치한 동측은 구도심으로서 상업시설의 이탈로 인하여 시설노후화로 인한 쇠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용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간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측으로의 공간확대로 동서 공간구조의 불균형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초기에는 새로운 배후주거단지로서 조치원 서측에 택지개발의 조성이 확대되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주거단지는 동측에 모둠살이를 하던 지역주민을 서측으로 끌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측은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동측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도시기능적인 면에서도 개발가능지가 풍부하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서측에 주거, 업무, 상업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기능도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원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역사적으로 조치원읍 주변에는 항상 조치원보다 거대한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현재는 설상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롭게 건설·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조치원읍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분절된 동·서의 공간구조를 조화롭게 균형발전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동서간 상호 연계 가능한 조치원읍의 도시기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구도심지역의 침체와 공동화 문제의 해결이 신·구도심지역 균형발전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외곽지역의 신규개발 정책은 구도심의 재생에 부정적인 파급효과

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관리 방향을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의 원칙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구도심의 부활과 신도심의 적정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개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성장관리가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통합됨으로써 구도심 재생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원의 불균형 문제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정책에 따른 도심기능의 균형적 분배가 아닌 일방적 유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기존의 도심업종(소매업, 도심형 제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의 잠재력과 부합되는 문화산업 및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의 중추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측면에서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류하기에 편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외관, 구조물의 디자인 등과 같이 도심경관의 개선을 통해 도심의 업무 및 주거환경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아래 조치원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측 도심지역과 서측 외곽 신시가지와의 기능적 분담 및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곽시가지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호간 기능의 분담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외곽시가지는 생활권중심지로, 도심지역은 중심상업, 업무기능과 문화, 관광기능의 중추관리기능 중심지로 특화하여야 한다.

둘째, 핵심사업의 선정 및 단계별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도심지역 활성화를 전담할 행정부서와 민간협의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와 추진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이 큰 핵심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초적인 소규모 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핵심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사업의 종합적,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도심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에 부합한 개발방식 적용한다.

대규모 철거재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적응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프로그램형, 프로젝트형 및 매니지먼트형의 도심활성화사업을 구분하여, 이들을 상호 적절히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프로그램형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개발 및 정비방향을 설정,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프로젝트형은 도심지역의 특정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일회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에 그친다. 매니지먼트형은 도심지역의 관리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중심으로 전체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넷째, 도심지역 활성화를 촉진 및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심정비구역 설정, 도심활성화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심활성화사업방식, 도심지역 업종 정비개선 지원, 공공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 도심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에 대한 특례, 도심활성화를 위한 시범도시제도, TMO와 관련주체간의 파트너십의 형성, 민간자본의 유치 및 활용 등을 담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현가능성이 높은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도심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공하며, 이해당사자간 도심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조정의 준거로 활용한다.

여섯째, 도심관리조직의 육성 및 시민합의기반의 조성한다.

도로와 건축물 등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을 설치하여 도심활성화 전체를 견인하고, 지자체와 시민 및 사업자간의 종합적인 조정 및 보완과 적극적 참여 유도,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등 적절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영, 일제 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제7호, 1993.

장팔현, ‘동네이름 바꾸기와 연기군 조치원읍’ -충청역사문화칼럼, 2006.08.10.,

(<http://blog.naver.com/jan835/40027332326>)

- ‘동네이름 바꾸기와 행복도시’, 세계일보, 2006.08.16

- , ‘조치원 지명 유래에 관하여! 최치원과 전혀 관계없는 지명’, 연기 인터넷 뉴스, 2007.07.19. (<http://koreainews.kr/Article/ArticlePrint.asp?txtNum=291&ASection=001004>).

최성일, 삼국각축의 격전장, 조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1.

연기군, 연기군 통계연보 2007.

연기군, 연기군지, 2007.

연기군, 조치원읍 종합육성계획, 200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

한국일보사, 한국의 여로, 1989.